이탈리아 3대 은행의 부실현황

이탈리아 3대 은행의 부실채권 지속 증가

□ 이탈리아의 전체 은행권 대출 규모는 1조 8,245억 유로이며 이중 유니크레디트(Unicredit: UCG), 인테사 산파올로(Intesa Sanpaolo: ISP), 몬테 데이 파스키(Monte dei Paschi: BMPS) 등 3대 은행의 대출 규모는 9,795억 유로로 전체의 53.7% 비중을 차지[1)]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실자산 증가, 예대마진 축소 등으로 3대 은행 모두 2011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BMPS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

- 3대 은행의 Tier1 보통주 비율은 10.7~13.0%로 외형상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49.9~54.2%로 낮은 점을 감안할 경우 자본적정성도 우려

이탈리아 3대 은행의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현황

(억유로)

구분	UCG			ISP			BMPS		
	총대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대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대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년	5,298	56	△140	3,731	41	△46	1,463	6	△14
2014년	4,887	69	20	3,542	66	13	1,428	△2	△54
2015년	4,886	57	17	3,609	67	27	1,300	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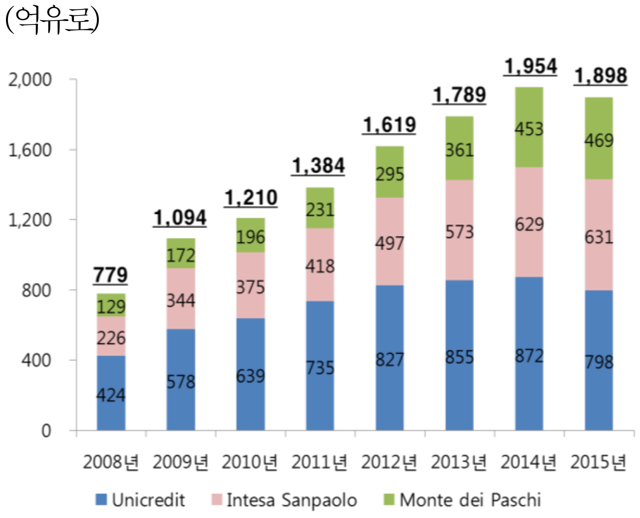
주 : 영업이익은 세전 충당금전 이익 기준
자료 : Bloomberg

주1) 2015년말 기준으로 이탈리아에는 총 644개의 은행이 있으며 164개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이며 상호은행이 365개로 절반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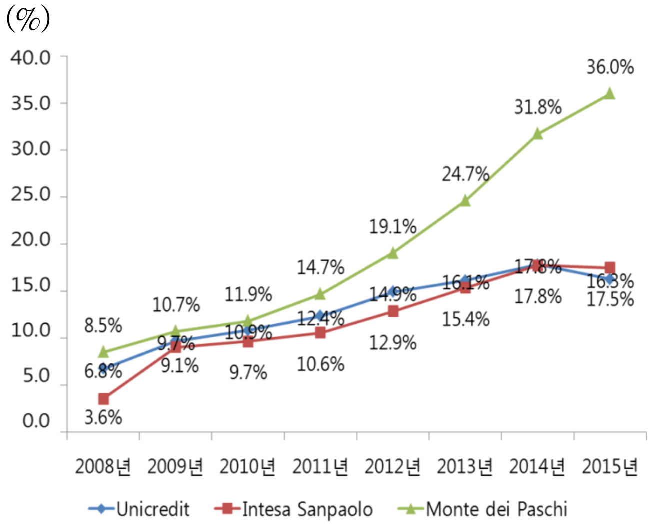
□ 이탈리아중앙은행(Bank of Italy)의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2015년 전체 은행권 부실대출은 3,373억 유로이며 이는 총대출의 18.5%에 해당되는 규모

– 3대 은행의 부실대출은 2015년 1,898억 유로이며 BMPS의 경우 총대출 대비 부실대출 비중이 36.0%로 3대 은행 중 가장 높음

3대은행 부실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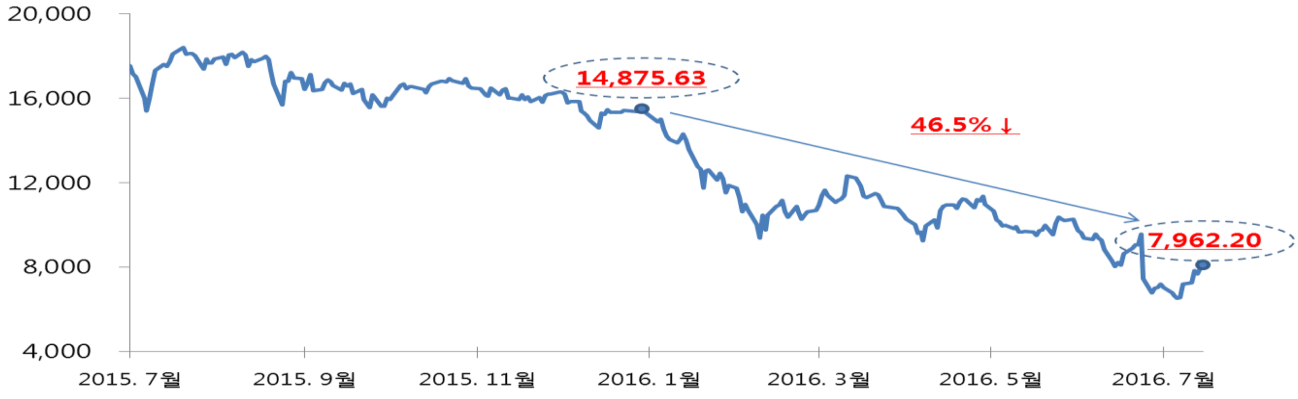
3대은행 부실대출 비중(총대출 대비)



자료 : Bloomberg

□ 이탈리아 은행지수(FTSE Italia All-Share Banks Index)는 은행 산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로 연초 14,875.63에서 2016.7.16일 7,962.20으로 46.5% 하락

이탈리아 은행지수 최근 1년 추이



자료 : Bloomberg

리스크관리 미흡 및 예대마진 의존 구조로 수익성 악화 고착화

□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사유는 느슨한 여신운용 기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자산유동화의 어려움 등이 있음

– 금융위기 당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환보다 만기연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아일랜드·스페인과 달리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없었음

– 이탈리아의 경직적인 법적 구조는 파산절차 종료까지 장기간 소요(평균 8년)되며 이로 인한 자산가치 저평가로 자산유동화가 어려움

□ 수익성 측면에서는 예대마진 하락 보완을 위한 자산관리 등 수수료 수입 비중이 낮고 비대한 인력 운영으로 비용효율성 취약

– 이탈리아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물경기의 부진에 따른 대출 감소, 부도 증가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동반 악화

– 2015년 이탈리아의 은행 점포수는 30,091개로 피자가게 보다 많은 것으로 비유될 정도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효율성* 개선이 시급

* 이탈리아 은행은 가톨릭 자선단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업적 성격이 약하고 종교, 정치, 지역 사회단체 등과 유착도가 높은 점도 방만한 경영요인으로 작용

정치적 불안에 따른 파급 영향 예의주시

□ 부실채권 문제는 정치적 불안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反EU정서 확대, 구조개혁 실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시 EU의 채권자 손실부담 원칙(bail-in)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 감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은행채의 45%를 소액투자자가 보유

–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정부에 대한 반감은 개헌투표를 앞에 둔 현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탈리아 정부는 EU측에 예외적용을 요구

□ 이탈리아의 EU내 경제규모 고려시 향후 정치적 불안으로 파생될 국제금융시장 영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국가는 과거 정치적 불안과 연계된 경제위기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킨 바 있음

– F.T(7.12)는 은행의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아야 되며 이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되어야 가능하다고 지적

EU 지역내 주요 국가별 GDP 비중(2015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25.1%	18.1%	13.6%	9.0%	1.5%	1.5%

주 : 영국을 제외하고 산출
자료 : IMF

담당: 정성국 수석연구위원
Tel. 051) 620-3189